

2012. 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2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2.10.30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장동환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10	-	2	19	-	1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7	11	1	1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 건	10 건	
보도	전국방송된 대전, 충남뉴스 다시 지역에 방송될 때 편집 다르게	동일 뉴스시간대 방송되는 아이템 전국과 지방뉴스 편집 차별화하고 있음	9월
보도	뉴스데스크 남녀 앵커 호흡 맞게	뉴스데스크 마무리멘트 남녀앵커 균등하게 처리	9월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 자막활용도 높혀야	자막활용도 증진함	9월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 진행자 진행기술 높혀야	진행자의 진행숙련도 증진	9월
보도	뉴스의 기획코너 새롭게 발굴	기획코너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음.	9월
교양	건강플러스 건강음식 일반시청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리법을	시청자들도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요리법 소개	9월
교양	스포츠 중계시 캐스터 교육 필요	캐스터 교육 강화함.	9월
교양	시사플러스 MC 진행기술	시사플러스 MC 진행기술 회가 갈수록 발전됨.	9월
교양	시사플러스 자막처리	자막처리 오류 없게 하고 있음	9월
기타	홈페이지 종영 프로그램 일목요연하게 정리 필요	홈페이지 현재 진행 프로그램과 종영 프로그램 재정리함.	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토크앤 조이’ 는 출연자가 누구냐에 따라 프로그램 성패가 결정되는 듯하다.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출연자 선정이 필요하다(김영광).	출연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출신 중 화제의 인물을 섭외하기 위해 제작진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편성수용
교양	‘아침이 좋다’ 코너에 시사적 내용이 방송된다. 어둡고 딱딱한 내용을 아침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영광).	요즘 주부들은 시사에 관심이 많다. ‘시사플러스’와 차별화된, 주부들에게 정보도 되는 시사접근을 하고 있다. 서울의 ‘생방송 오늘 아침’도 시사를 많이 다룬다.	반론
교양	‘아침이 좋다’에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바닷가 마을을 소개하는 것이 있었다. 왜 이 여성이 등장했는지 의미파악이 쉽지 않았고 이 영상물에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김영광)	‘아침이 좋다-바다로 한 뼘 더’는 천혜의 갯벌인 서해안 1000리를 50부 연작으로 다루고 있다. 외국여성의 출연은 재미를 위한 장치이며, 이 코너는 50부 완성 후 새로운 플랫폼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편성 의견참고
기타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니터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다. 케이블사에서 공급한 것을 수용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케이블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김영광)	벽에서 TV수상기까지의 RF케이블은 품질 좋은 케이블로 구매, 또는 케이블사에서 제공한 케이블로 교체 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화면상태가 안 좋을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공칭케이블의 노후화가 큰 원인으로 이에 따른 교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담당이므로 케이블 교체요청을 해야 한다.	기술 의견참고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의 경우 어지간해서 집중하고 보지 않으면 스톱 지나간다. 토론 내용이 시민들이 관심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자료화면을 활용하지 않고 말로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흥미와 집중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야외촬영한 영상물을 토론과 함께 다루어지길 기대한다(김영광).	토론 내용을 중간부터 시청하더라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질문을 수시로 자막 처리 하는 방안을 채택 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엑스포 과학공원은 롯데가 엑스포 끝난 93년부터 눈독을 들였던 곳이다. 과연 롯데가 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이 대전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전시가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취지로 롯데의 민간투자를 받아들인 것은 문제점이 많아	지지부진한 엑스포 과학공원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토론회와 이슈 등을 계속해서 뉴스에서 리포트로 소화하고 있으며, 과학도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한 엑스포 재창조 문제에 대해 뉴스 의제설	보도 수용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보인다. 대전MBC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김영광).	정을 시도하려한다.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에서 MC의 역할이 약하다. 토론주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한다. 출연자 패널들에게도 질문을 사전에 확인을 했으면 한다. 교통전문가에게 지역경제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는 교통전문가는 당황한다. 패널섭외를 주제에 맞게 하고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오덕성).	토론 분야에 맞는 패널섭외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에 신경쓰겠다.	보도 수용
교양	10월 7일 방송된 'TV특강'(책을 쓰자. 인생이 바뀐다)은 주말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도입부에 강사소개와 강의 주제에 관한 소개를 삽입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오덕성).	'TV특강'은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며, 삼척MBC가 키사이다. 제작진에게 전달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10월 5일 '시사플러스'에서 다룬 <다르지만 같은 우리>는 다문화가정을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심도있게 처리하였다. 외국인 결혼 이주자로 인한 출산율 증가와 같은 긍정적 측면과 이혼과 자녀교육문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함께 설명하면서 객관성을 잘 유지했고 실제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례별로 잘 소개해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자녀교육의 경우 이주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는 점이었다. 정책적 측면도 다루어볼 만한 것이 아니었을까(오덕성)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시사플러스'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이টে을 지속적으로 다뤘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가 밤 8시로 전환된다고 하니 기존 9시에 고정하여 뉴스를 시청했던 시청자들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대전MBC 뉴스는 타 방송사와 차별화되어야만 한다. 심층취재와 공정성을 담보로 시청자들에게 나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현안을 심층취재하여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뉴스를 제작해주길 바란다(오덕성).	9월 이후 요일별, 테마별 기획뉴스 구성작업이 완료되었으며 '뉴스인 뉴스'를 통해 심층성과 분석력을 강화하고, 집중취재와 뉴스블록화를 통한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다.	보도 수용
보도	서해안에 허베이 스프리트호가 기름 유출 사고를 낸지 5년째이다.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해당지역 어민들의 그 뒷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전MBC에서 5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기름유출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그동안 다루어왔다. 5주년째 12월에 기획뉴스로 취급하려고 한다.	보도 수용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p>제작 방송해 주길 바란다(한찬희).</p> <p>‘토크앤 조이’ 출연자층이 두터울까 걱정스럽다. 이제까지 출신지역이 대전, 충남이면서 활동지역은 서울인 유명인사들(태진아, 배일호, 황기순..)이었지만 앞으로 이 곳 출신지가 아니더라도 활동준거지가 대전 충남인 인사들도 섭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싶다. 10월 6일 방송된 ‘토크앤 조이’를 보면 출연인사가 탤런트 박혜미씨였는데 질문을 거의 남MC 허참에만 의존 여MC 역할이 거의 없었다. 사전에 여MC 역할 구성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가 토요일 아침 9시인데 차별하게 앉아서 볼 시간대는 아니다. 편성시간대를 옮겨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송인덕).</p>	<p>‘토크 앤 조이’의 출연자는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출연자 선정 기준은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다. 좋은 출연자가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길 바란다. 여MC의 역할은 회를 거듭할수록 안정을 찾고 있다.</p>	편성 의견참고
보도	<p>10월 24일 ‘생방송 토론마당’ 주제는 경제민주화였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해 많이 들었던 주제였다. 그래서 그런지 토론에 대한 흥미는 떨어졌다. 패널 또한 진보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 갑론을박의 토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패널 섭외를 잘 할 필요가 있겠고 지역방송 차원에서 지역관련 이슈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송인덕).</p>	<p>토론마당의 구성을 패널들 간의 치열한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이슈에 대해서는 친절한 분석이 중요할 때도 있다. 지역 이슈는 아이템 회의 등을 강화해 보다 지역에 밀접한 이슈를 선정하겠다.</p>	보도 의견참고
교양	<p>‘건강플러스’ 프로그램은 맛있는 처방전 10분, TV주치의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몇 해 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맛있는 처방전에는 한의사와 요리전문가가 등장하여 음식에 대한 한의사의 효능설명과 요리전문가의 요리방법을 vj가 촬영한 영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TV주치의는 전문의 1명이 출연 딱딱하게 자료 CG 보여주면서 진행을 한다. 몇 주분을 모니터하였는데 제작 및 구성이 변화가 없다. 스튜디오에서 다양하게 소개할 방법은 없는가? 오래동안 진행되어온 프로그램이지만 구성의 변화가 전혀 없다. 맛있는 처방전도 그렇고 TV주치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작기법과 구성을 시도해 주길 바란다(유덕순).</p>	<p>제작진과 형식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p>	편성 의견참고
교양	10월 5일 ‘시사플러스’에서 다룬 다문화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서 고맙다.	편성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가정에 대한 정책은 우리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현실 상황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주 여성들로부터의 직접 얘기를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잘 어울려 살고 있는 사례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 부정적 시각을 객관적으로 잘 살림으로써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올렸다고 생각한다(김명수).</p>	<p>그동안 '시사플러스'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이টে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p>의견참고</p>
<p>기타</p>	<p>DMB를 시청하다 보면 청주, 충주MBC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대전MBC 프로그램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박희원).</p>	<p>대전MBC가 DMB 충청권 대표사업자이지만 DMB투자액이 대전, 청주, 충주MBC가 각각 4:3:3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송권역이 충남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매주 순번제로 대전, 청주, 충주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있다.</p>	<p>기술 의견참고</p>
<p>교양</p>	<p>대전 MBC의 시사플러스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 여건 하에서도 끊임없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아젠더 설정으로 지역민에 대한 애정과 공중파로서의 책무가 느껴지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10월 5일에 방송된 시사플러스 '다르지만 같은 우리' 편은 다문화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전국적인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대전·충남의 지역적 특성이 잘 분석되었고 여러 가지 의제별 접근 즉 자녀교육의 문제, 결혼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직업 대책, 그리고 해외결혼 중개업소의 문제 등을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방영하였다. 그러나 시사플러스의 40분도 안 되는 방송 시간에 담기에는 너무도 많은 소재와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이렇다보니 각 의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황분석에만 그친 미진한 내용의 방송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를 소재별로 구체화시켜 시리즈로 계획·</p>	<p>'시사플러스'을 시작한지 4년이 넘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많은 상도 수상했고, 지역 사회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대전MBC의 간판 프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3명의 PD가 돌아가다 보니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디테일에 약점이 있다. 시리즈물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p>방영한다면 훨씬 더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p> <p>시사플러스는 의제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접근을 통한 심층탐사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김형주).</p>		
교양	<p>10월 5일에 방송된 시사플러스 '다르지만 같은 우리'에서 한국 결혼이주자 관련 최신 통계를 다양하게 제시해 메시지의 설득력을 제고한 점이 돋보인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냄으로써 기존 다문화 관련 방송과 차별화한 점이 좋았다. 향후에는 다문화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방송 횟수가 늘어날수록 분석 초점의 다양화, 차별화를 심화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시리즈로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p> <p>opening ment에서 “프로듀서의 시각으로 집중 조명하는”이라는 발언이 지금도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시청자들은 진행자가 프로듀서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인터뷰이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검정 네모 박스 속에 흰 글씨로 쓰고 있는데 좀 더 산뜻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면 좋겠다(김경숙).</p>	<p>과분한 칭찬에 감사한다. '프로듀서의 시각으로 집중 조명하는' 멘트는 제작진과 상의하고, 글자체의 디자인은 개선하도록 하겠다.</p>	편성 수용
보도	<p>'생방송 토론마당'에서 <서해안 유류피해보상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을 가졌다. 매우 중요한 이슈를 선정해 중앙 및 지방정부, 도민 등 관련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정리하고 조속하고 성실한 피해보상을 역설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다. 진행이 다소 맥이 빠지는 느낌을 든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MC의 역할이 중요한데 패널을 컨트롤하는 힘이 약하다. 사회자가 발언을 하면서 원고를 자주 보는데 보는 횟수를 줄이고, 발음이 잘못되어 다시 말하는 횟수를 줄이면 좀 더 안정감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경숙).</p>	<p>프로그램 모니터와 스태프회의를 강화해 안정감 있는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보도 수용